

이용섭 후보 ‘전두환 청와대 사정수석실 근무’ 논란 확산

시민사회·SNS 등 “전두환 사정업무 구체적 내용 밝히라”
강기정 이어 양향자도 “당시 했던 일 소상히 검증 받아야”
이 후보 측 “전두환 부역은 가짜뉴스... 이미 검증 끝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용섭(68) 예비후보의 전두환 정권 청와대 근무 전력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실 근무 이력(1985년12월~1987년 6월)을 두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당시의 행적을 밝히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당시 전두환 청와대 비서관실 행적’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경선 경쟁자인 강기정(54·양향자(여·51) 후보도 논란에 가세하고 나섰다.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강 후보측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정기관으로 전두환 정권을 떠났던 사정수석실에서 이 후보가 실제로 한 사정업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이사장은 “이 후보자는 4급서기관으로 사정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나, 당시 청와대 비서관실 직원명부를 보면

그는 사정수석실 서열 9위였고 초대수석은 보안사 출신 5공 실세인 허삼수씨였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88년 당시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가 김종건 사정수석을 대회의의 관련자로 지목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전두환의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용섭 예비후보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보의 이력서는 길고 화려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이력은 보기 힘들다”며 “이 후보는 당시 했던 일들을 소상히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이어 “강 후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젊은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렀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에 입성했지만 당 중진이 되는 동안 왜 이 후보를 검증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18기념재단을 찾은 이 후보와 면담을 통해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당시 행적을 밝혀주세요. 그럼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팩트는 팩트대로 5월이 밝혀달라, 회장님도 한 말씀 달라”고 이 후보자가 요청하자 이같이 언급했다. 반면,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과거 선거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용섭 후보는 2010년 2월 1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발표 자료를 제출하였고 우리가 제기한 의혹에 명백하게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부역은 가짜뉴스다. 어찌구무가 없다. 정당한 선거로는 경쟁이 안 되니 상대가 비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5·18기념재단에서 광주일보와 만나 “추후 공개된 장소에서 전두환 청와대 근무 이력에 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용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 개별 인터뷰에 응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두환 청와대 사정수석실 이용섭 사진 공개 11일 윤광장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두환 비서관 이용섭 후보가 광주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윤 전 이사장이 들고 있는 사진 속 원 안이 이용섭 후보이며, 의자에 앉아 있는 이가 박종철 열사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던 김종건 사정수석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평화당 선대위 체제 전환... 인재영입 사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승부수
최재천 전 의원 등 영입 총력
민영삼 교수 최고위원 임명

라도 사투리를 가미한 ‘송곳 질문’으로 ‘스까요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김 삼임 선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평화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평화당은 창당 두 달 만에 253개 선거구 중 101곳에 대한 지역위원장 인선을 마치는 등 지방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 선거와 광주 서구 갑, 영암·무안·신안 재보궐 등 5곳을 핵심 승부처로 꼽고 있다. 평화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정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전정배·박지연·조배숙·황주홍 등 중진의원은 물론 정대철 상임고문까지 참여해 인재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평화당은 최재천 전 의원과 윤택립 전 전남대 병원장 등을 광주시장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최종 영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목포 출신의 홍훈희 변호사를 서구 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투입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를 투입, 김영진 예비 후보와의 경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으로 알려

졌다. 여기에 민영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를 영입하고 지방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민 교수는 목포 출신으로 각종 중견방송 프로그램 토론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민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5개 지역의 후보 공천을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지역위원장들이 출마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경선에 나서는 분도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발이 묶였지만 평화당과 활동을 함께하는 박주연·이상돈·장정숙 비례대표 의원 3인은 이날 회의에 평화당의 선대위 복당인 초록색 제기를 입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도 평화당과 함께 치러내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향해 출당 요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p>임형진 “남구 에너지밸리 연계 에코지구 조성”</p> <p>임형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 후보는 11일 “2020년까지 조성되는 에너지밸리 사업과 연계해 에코지구를 조성하겠다”면서 “에코지구 지정을 통해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스마트시티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에코지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해 온실가스 감소와 연료비 격저 없는 친환경 생태주거단지가 될 것이다”며 “각종 에너지 절약·충전·재사용 시설, 물 절약 시설, 폐기물 최소화 시설을 두루 갖춘 사용자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제시했다.</p>	<p>김보현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p> <p>김보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는 11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구를 대표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더욱 늘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강사의 처우 개선은 구민 건강과 밀접함으로 재정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청, 의회, 종목별 단체와 협의의 기구를 만들어 현장중심 체육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p>문상필 “혁신전략으로 새 광주역 시대 열 것”</p> <p>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 후보는 11일 “경제·지역·생활혁신 등 3대전략을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계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면서 “경제혁신전략을 통해 새로운 광주역시대를 열겠다. 광주역의 철도기능 폐쇄를 전제로 청년 창업클러스터 건립과 한국문화회관 연구원(CT)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p>	<p>문인 “북구청 광장·청사 개방으로 주민 소통”</p> <p>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1일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북구청 광장과 청사를 개방해 주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전남대학교와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통해 주민 소통을 위한 청사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주민참여와 소통이 배제되고 공익만 앞세운 일방적 행정은 결국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p>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 원룸매매

◎ 산정공원 바로 앞 (코너) 주인집 거주

1층 상가 (2개)
2층~3층 (원룸 12개)
4층 (최고급 주택)

월수익 550만

◆매가 : 9억 5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매가 8억3천

② 월곡동 월곡시장 2분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매매가 8억5천만

③ 전대정동 2분 (원, 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p>1) 서구 매월동 (정례식당)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억70억 → 최저가 2억70억</p> <p>2) 화순 도곡면 (무인빌)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7(월수익 5,0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8천</p> <p>3)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부건대 2분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7백</p> <p>4) 담양군 삼대리 (무인빌) 토 3319평 건 750평 객실327개(월수익 4,500만 예상) ▶감평가 39억 → 최저가 13억5천</p>	<p>4) 서구 금호동 (7층 중 7층상가) 100평상가(대단위아파트 위치)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p> <p>5) 삼무지구 세정아울렛 (29평) 감평가 3억 → 최저가 3억</p> <p>6) 효천지구 (1층 상가) 감평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억</p> <p>7)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4억7천</p> <p>8) 삼무지구 (12층중 8층상가) 감평가 8억7천 → 최저가 8억7천</p> <p>9) 광산구 월계동 (호반아파트상가)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p> <p>10) 동구 충장로 (3층 상가빌딩) 감평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p> <p>11) 군산시 오식도동 (4층 상가) 토 130평 건 306평 군산 신업단지 내위치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p>
---	---

A.P.T	주택	토지.기타
<p>1)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9평)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9천</p> <p>2) 서구 내원동 내원주공(아파트) (39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3) 서구 금호동 광안(아파트) (49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p> <p>4) 서구 동산동 한미(아파트) (49평)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2억</p> <p>5) 광산구 소촌동 수위(아파트) (49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6) 북구 중흥동 주택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6천</p> <p>7) 남구 오정동 주택 토지 67평 건물 37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8) 남구 금천동 주택 토 114평 건물 45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9) 남구 공산동 주택 토 42평 건물 22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10) 남구 월산동 (공장) 토 39평 건 39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11) 남구 월산동 (공장) 토 222평 건 135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p> <p>12) 남구 금천동 (주택) 토 144평 건 45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13) 남구 금천동 (주택) 토 144평 건 45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p>14) 서구 용암동 (주택) 토 130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p>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